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10(금) ~ 2025.1.16(목)

제공일시 2025 1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10(금) ~ 2025.1.16(목)

제공일시 2025.1.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 글로벌 정책

### 1. “美, 첨단 칩 中 우회 차단 규제 추가, 삼성·TSMC 등 대상”... 업계 반발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삼성전자와 TSMC 등이 만든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추가 규제가 이르면 이날 공개될 예정이며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 반도체 제조사들이 고객사를 더 면밀히 조사하고 실사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라고 보도함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3일 중국을 겨냥해 새로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규제가 추가될 전망이다
- 이번 규제 초안에는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나 16nm 이하 반도체와 관련해 별도의 세계적 통제에 따라 제한을 받고, 이를 중국 등에 팔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조선비즈 2025.1.15\)](#)

### 2. EU 택소노미, 간소화 초안 발표... 규제 완화 아닌 효율화

- 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 금융의 기준이 되는 택소노미 간소화 작업에 나섬
- EU 집행위원회의 택소노미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PSF)’은 8일(현지시각) 택소노미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함
- 이번 간소화 작업은 기업들의 적용 편의성을 높이되 환경 목표 달성 기준은 더욱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춤
- EU는 2월 중 지속가능성 규제의 중복을 없애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임. 여기에는 택소노미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포함됨

[\(임팩트온 2025.1.13\)](#)

### 3. UAE, 9조원 규모 태양광·배터리 프로젝트 추진... 세계 최대 시설 목표

- 아랍에미리트(UAE)가 60억달러(8조7700억원)를 투자해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시설을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아부다비 국영기업 마스다르(Masdar)가 5.2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태양광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이 프로젝트는 2027년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임팩트온 2025.1.15\)](#)

## 국내 정책

### 1. 'AI 기본법' 공포 임박... 과기부, 법 시행 준비 본격화

-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공포가 임박하면서 정부가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는 모습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힘
- 현재 기본법 시행령 등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방향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놓은 정도로, 정비단 출범을 계기로 하위 법령 초안 마련을 시작하는 단계로 전해짐
- 정비단은 이날 첫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임

[\(아시아투데이 2025.1.15\)](#)

### 2.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2월부터 시행

- 다음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 인증하고 배터리마다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됨
-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함
- 국토부는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오는 2월에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를 실시함

[\(뉴시스 2025.1.13\)](#)

### 3. "중소기업도 AI 못쓰면 도태"... 중기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에 비해 미래 기술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AI 등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기술대응지원단'을 신설함
- 미래기술대응단은 최대 1년간 운영하는 '자율조직'으로, 향후 중소기업 AI 활용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규제 대응에 집중할 전망이다
- 미래기술대응지원단의 주요 기능은 미래 기술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일임
- 구체적으로는 AI 전환(AI),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임

[\(뉴스1 2025.1.9\)](#)

## 글로벌 기업

### 1. 도요타, 2030년부터 日생산기지 재편한다... 노동력·지진·전기차 대응

-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2030년을 목표로 일본 내 생산 체제 재편에 나섬. 요미우리신문은 13일 보도를 통해, 본사가 있는 중부 아이치현에 집중된 생산 시설을 도호쿠와 규슈로 일부 이전할 방침이라고 전함

-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함께 지진 등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기자동차(EV) 생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임

[\(아주경제 2025.1.13\)](#)

### 2. '대우건설·SK E&S 눈독' 베트남 LNG 발전소 개발 사업 입찰 재개

- 대우건설과 SK E&S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베트남 탄호아성 응이손(Nghi Son)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개발 사업이 입찰을 재개함

- 응우옌 반 티 탄호아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응이손 LNG 발전소 개발 사업 입찰을 오는 15일부터 다시 개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입찰 서류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더구루 2025.1.10\)](#)

### 3. SMR보다 작은 원자로... 美서 상용화 길 열렸다

- 미국 최초의 마이크로 원자로 '이빈치(eVinci)'가 상용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땀. 마이크로 원자로는 소형모듈원전(SMR)보다 발전용량이 작은 초소형 원자로임

-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달 미국 원자로 규제당국으로부터 5메가와트(MW) 이빈치를 원격 운영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승인을 받음

- 존 볼 웨스팅하우스 이빈치 프로그램 책임자는 “제어 시스템으로 세계 곳곳에 배치된 원자로들을 중앙에서 관찰하는 게 목표”라고 함

[\(한국경제 2025.1.10\)](#)

### 4. 중국, AI 칩용 HBM2e 양산 시작... 韓 반도체 기업 지각변동 오나?

- 중국이 첨단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HBM2e(고대역폭메모리) 양산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됨. 중국 4대 포털 중 하나인 서우후(搜狐)는 선전위안위안즈춘테크놀로지(이하 위안위안즈춘)가 AI 칩용 HBM2e 메모리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각) 보도함

- 위안위안즈춘은 HBM 생산의 핵심인 TSV(Through Silicon Via)와 CoWoS(Chip on Wafer on Substrate) 기술을 확보함. 이번 HBM2e 양산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를 우회하는 움직임임

[\(글로벌이코노믹 2025.1.13\)](#)

## 국내 기업

### 1. 삼성SDI, 유럽서 '각형 배터리 핵심 소재' 알루미늄 대규모 공급처 확보

- 삼성SDI가 독일 알루미늄 공급업체 '스페이라(Speira)'를 통해 각형 배터리 핵심 소재인 알루미늄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
- 스페이라는 삼성SDI의 협력사에 배터리캔용 알루미늄을 납품, 삼성SDI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형 배터리 시장에서의 왕좌를 공고히 함
- 15일 스페이라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삼성SDI 배터리캔 공급 업체와 각형 배터리캔용 알루미늄 스트립 장기 계약을 체결함
- 계약 기간과 규모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음

[\(더구루 2025.1.15\)](#)

### 2. SK에코플랜트, BMW와 배터리 재활용 협력... "유럽시장 공략"

- SK에코플랜트가 유럽의 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을 위해 BMW와 손잡. SK에코플랜트의 배터리 재활용 전문 자회사 SK테스는 BMW그룹과 유럽지역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맺음
- 이번 협업은 BMW의 전기차 폐배터리 등에서 추출한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새 배터리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배터리 순환경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서울와이어 2025.1.14\)](#)

### 3. LG에너지솔루션, 美 앵테라에 태양광 EV 배터리 셀 독점 공급 계약

-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자동차 스타트업 '앵테라 모터스(Aptera Motors, 이하 앵테라)'에 태양광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추진함. LG에너지솔루션은 9일(현지시간) CES 2025에서 앵테라, CTN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4.4GWh 규모의 2170 원통형 배터리(지름 21mm·높이 70mm) 셀을 독점 공급함

[\(더구루 2025.1.10\)](#)

### 4. 트럼프에 '선물 보따리'... 고려아연, 美에 희귀금속 수출

- 고려아연이 미국에 희귀금속 '안티모니'를 수출함.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미국에 수출 제재를 시행한 탓에 수급난이 심화한 품목임
-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에 전략 광물 자산인 안티모니를 수출하는 방안을 두고 고려아연과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됨. 현재 정부와 고려아연은 연간 생산량 중 10%인 350t가량을 미국에 수출한 뒤 순차적으로 수출량을 늘릴 계획임

[\(한국경제 2025.1.14\)](#)

## 바이든 “AI 전쟁서 中 이긴다”... 데이터센터 구축 위해 국유지 개방

- 미국 정부가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을 던졌음.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국방부와 에너지부 소유의 연방 부지를 민간 기업에 임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이는 AI 칩 수출 통제 규정이 발표된 데 이어 공개됐음.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AI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 목표도 달성하겠다고 밝혔음

- 미국은 현재 AI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AI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음. 미국 에너지부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8년까지 3배 늘어나라고 보며, 이는 미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12%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AP뉴스와 로이터 등 해외 미디어에 따르면, 타룬 차브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은 “2028년경에는 선도적인 AI 기업들이 AI 모델 학습을 위해 5GW(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용량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음

-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각각 최소 3개 이상의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부지를 선정해 민간 기업에 임대할 계획임

- 선정된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기업들은 전력 공급을 위한 청정에너지 발전 시설도 함께 구축해야 함. 내무부는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개발이 가능한 연방 부지를 발굴하고, 지열 발전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임.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은 민간 기업이 부담하게 됨

- 에너지부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전력망 연결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도 제공함. 각 기관은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국방부는 즉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부지별 검토 속도를 높일 예정임

- 중소 AI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부지도 마련됨. 미 정부는 데이터센터 건설 시 공공 노동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수준의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요구할 계획임

-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AI 업계와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독보적인 AI 선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려면, 이번 행정명령이 차기 정부에서도 꼭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임

- 오픈AI의 크리스 르헤인 글로벌 담당 부사장은 “AI 산업은 제로섬 게임이며, 미국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면서 “이는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적 AI 기반 위에 세워질지, 권위주의적 AI 기반 위에 세워질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연방정부 IT 전문 미디어 Nextgov/FCW는 전했다

- 미국정보기술산업협회(ITI)의 고든 비코 공공부문 정책 부회장도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데이터센터와 같은 필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임팩트온 2025.1.16\)](#)